

# [투자제안서] CBVR: 스스로 진화하는 금융 기술 플랫폼

## (Institutional Capital Efficiency Solution)

### Executive Summary

금융 시장의 가장 큰 난제는 "영원한 알파(Alpha)는 없다"는 것입니다.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도 시장 국면이 바뀌면 성능이 저하(Decay)되며, 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막대한 퀀트 인력과 비용이 투입됩니다.

**\*\*CBVR(Channel-Vector Based Volatility Rebalancing)\*\***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. CBVR은 단순한 투자 알고리즘이 아닙니다. **\*\*"재귀적 확장성(Recursive Scalability)"\*\***을 통해 시장 상황에 맞춰 스스로 논리를 진화시키는 금융 기술 플랫폼입니다.

우리는 이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,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'자본 효율성'과 '변동성 붕괴'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**\*\*[CBVR 2.3 선물 복제 프레임워크]\*\***를 플래그십 솔루션으로 제안합니다.

본 제안서는 30억 원의 Series A 투자를 통해, 단순한 수익률 경쟁을 넘어 기관 자본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 파트너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입니다.

### 제1장. 비전: 멈추지 않는 엔진, 진화하는 플랫폼

#### 1.1. 시장의 문제: "유지보수의 덩"과 "블랙박스"

- Alpha Decay (알파의 붕괴): 기존의 퀀트 전략들은 특정 시장 국면에 과적합(Overfitting)되어 있어, 시장 성격이 변하면 수익률이 급락합니다. 이를 수정하기 위한 R&D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.
- Black Box (설명 불가능성): "AI 기반"을 표방하는 수많은 솔루션들은 작동 원리를 설명하지 못합니다. 기관 투자자는 이해할 수 없는 전략에 거액을 맡길 수 없습니다.
- Inefficiency (자본 비효율): ETF 기반 투자는 구조적인 '변동성 붕괴(Volatility Decay)'와 낮은 자본 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.

#### 1.2. CBVR의 해답: Self-Evolving Platform

CBVR은 이러한 문제를 **\*\*"재귀적 구조"\*\***로 해결합니다.

- 스스로 진화하는 구조: 개별 자산 → 포트폴리오 → 메타 전략에 이르는 전 계층에 동일한 로직이 반복 적용되어, 시장 국면이 바뀌면 시스템이 스스로 비중을 조절하고 생존 모드로 전환합니다.
- Transparent Logic (투명한 철학): 3중 필터(레벨, 스피드, 트렌드)라는 명확한 규칙 기반 시스템으로, 수익과 손실의 원인을 100% 설명 가능합니다.

## 제2장. 핵심 기술: 진화를 가능케 하는 메커니즘

### 2.1. 3중 필터 시스템: 정교함의 증거

우리의 플랫폼은 막연한 예측이 아닌, 세 가지 정교한 필터를 통해 시장을 진단합니다.

1. 레벨 필터 (Level Filter): 가격의 위치를 파악하여 고평가/저평가 국면을 정의합니다.
2. 스피드 필터 (Speed Filter): 변동성의 속도를 측정하여, 불필요한 매매를 줄이고 비용을 통제합니다.
3. 트렌드 필터 (Trend Filter): 시장의 방향성을 읽고, 추세가 붕괴될 경우 스스로를 멈추는 용기를 발휘합니다.

### 2.2. 재귀적 확장성 (Recursive Scalability): 기술적 해자(Moat)

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CBVR만의 기술적 해자입니다. 전략이 전략 스스로를 감시합니다. 하위 자산의 성과가 무너지면 상위 포트폴리오가 이를 감지하여 비중을 축소합니다. 이는 별도의 인력 개입 없이도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.

### 2.3. 압도적 성과 검증 (Proof of Concept)

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.

- CAGR 42%
- MDD -18%
- Sharpe Ratio 2.3
- 지난 15년 백테스트 기준, 이 수치는 기술이 실제로 작동함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.
- 최신 분석과 실시간 포지션은 24h 라이브로 중계되고 있습니다.

[https://wejump3.tistory.com/category/CBVR 전략성과](https://wejump3.tistory.com/category/CBVR%20전략성과)

## 제3장. 플래그십 솔루션: 기관을 위한 "CBVR 2.3 선물 복제 프레임워크"

우리는 기관 투자자에게 단순한 '매매 신호'를 팔지 않습니다. 우리는 **자본 효율성 솔루션**을 제공합니다.

### 3.1. 문제 해결: ETF의 한계를 넘어서

기존 레버리지 ETF 투자는 횡보장에서 자산이 녹아내리는 '변동성 붕괴(Volatility Decay)'라는 치명적 단점이 있습니다. 기관 투자자에게 이는 수용하기 힘든 구조적 손실입니다.

### 3.2. CBVR 2.3 프레임워크: The Flagship Solution

우리는 KOSPI 200 선물을 활용한 **[Target Beta 복제 시스템]**을 제안합니다.

1. 변동성 붕괴 원천 제거: 선물을 사용하여 지수 자체를 추종함으로써,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손실 비용을 '0'으로 만듭니다.
2. 극강의 자본 효율성 (Capital Efficiency):
  - Target Beta(예: 1.5배)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증거금은 자본의 약 30~45%에 불과합니다.
  - Bucket 3 (유휴 자본의 재투자): 남은 55~70%의 현금을 놀리지 않고, 안전한 실물 자산

- (채권, 배당주 등)에 재투자하여 '이중 복리' 효과를 창출합니다.
3. 목표 MDD 통제: 기관이 원하는 리스크 허용 범위(예: MDD 25%)에 맞춰 레버리지 비율 (Lg)을 정교하게 커스터마이징합니다.

Value Proposition:  
"CBVR 2.3은 기관의 자본 운용 효율을 2배 이상 끌어올리는, 대체 불가능한 솔루션입니다."

제4장. 시장 전략 (GTM): 선택과 집중

4.1. Primary Target: 기관 투자자 (B2B First)

시리즈 A 단계에서의 최우선 목표는 기술적 가치를 즉시 알아보고 대규모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 시장입니다.

- 타겟: 자산운용사(상품 개발), 증권사(랩어카운트), 패밀리오피스, 연기금.
- 제공 모델: CBVR 2.3 선물 복제 프레임워크 라이선싱, API 연동, 화이트라벨링.
- 전략: "Flagship Solution"을 통한 Top-Down 접근. 기술적 완결성을 바탕으로 기관의 운용 파트너로 포지셔닝합니다.

4.2. Secondary Target: 개인 투자자 (B2C as Foundation)

B2C 시장은 수익화의 즉각적인 도구보다는, CBVR 브랜드의 팬덤(Fandom)과 신뢰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합니다.

- 역할: "설명 가능한 투자" 콘텐츠 제공, 커뮤니티 형성.
- 전략: 기관 시장에서의 성공(Authority)을 바탕으로 개인 시장으로 낙수 효과(Trickle-down)를 유도합니다.

제5장. 투자 요청 및 로드맵

5.1. 투자 개요

- 모집 금액: 30억 원 (Series A)
- 기업 가치: (협의를 가능 / 기술적 해자와 플랫폼 확장성 기반 산정)

5.2. 자금 사용 계획 (선택과 집중)

우리는 확보된 자금을 B2B 파이프라인 구축과 기술 고도화에 집중 투자할 것입니다.

항목	금액 (비중)	세부 계획
B2B 파이프라인 및 영업	12억 (40%)	기관 전담 세일즈 팀 구축, 글로벌 컨퍼런스 참가, 기술 백서 및 PoC 진행
R&D 및 기술 고도화	9억 (30%)	CBVR 2.3 프레임워크 고도화, API 보안 강화

		(ISMS 준비), 핵심 퀀트 영입
플랫폼 개발 및 운영	6억 (20%)	B2B/B2C 통합 대시보드 개발, 서버 인프라 확충
B2C 마케팅 및 커뮤니티	3억 (10%)	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커뮤니티 운영

### 5.3. 성장 마일스톤

- Y1 (기반 구축): CBVR 2.3 프레임워크 상용화 완료, 기관 파트너 2~3곳 시범 계약 (PoC).
- Y2 (시장 침투): 운용사/증권사 정식 라이선스 계약 10건+, AUM 연동 1,000억 원 목표.
- Y3 (확장): 글로벌 시장 진출 및 B2C 유료 모델 본격화.

### Epilogue: 투자의 미래를 다시 쓰다

CBVR은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, '예측이 아닌 대응', '\*\*비용이 아닌 효율'\*\*을 추구하는 금융 공학의 정수입니다.

우리는 가장 정교한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First Solution이 될 것입니다. 30억 원의 투자는 단순한 자금 수혈이 아닌, 금융 시장의 비효율을 혁신하는 거대한 여정의 연료가 될 것입니다.

우리의 기술은 준비되었습니다. 이제 파트너 여러분과 함께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.

참고 : 문서저장소 (<https://crowmag2.github.io/wejump/>)